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에 대한 고찰

이상주*

-
- I. 머리말
 - II. '신경행(辛景行)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의 서지적 검토
 - III.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의 저자에 대한 검증
 - IV. 맺음말
 - V.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역주
-

I. 머리말

필자가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를 열람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증평문화원에서는 지금의 청안면 덕상리 출신인 신경행(辛景行, 1574~1629)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낼 계획을 세우고, 필자에게 자료를 정리해줄 수 있겠느냐고 상의해왔다. 개인적으로 계획된 일도 있고 문화원에서 예정한 출간 시일이 촉박하여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내 입장을 말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동참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그들의 의사를 타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여 알려 주겠노라고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다. 필자도 마찬 가지지만 다행이 지역 문화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두 사람이 협조하기로 하여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필자는 혹 국내 어디엔가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을 기록한 신경행의 기록이 소장돼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우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런데 '신경행(辛景行)' 저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 1책이 소장돼있는 것이 아닌가.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고 국립도서관에 올라가서 자료 열람을 신청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사진을 찍어 출력해보았다. 노란색 한지 표지로 장정했다. 내용에는 행초체로 '「홀기(笏記)」', 행서체로 '「제백산선생문(祭白山先生文)」', 그 다음에 '신경행(辛景行)' 저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라고 '해서체'로 기록해놓았으며, 본문은 '행초체'로 기록해놓았다. 편지로 보이는 초서체의 글, 행서체의 편지는 발신인이 신현복(辛鉉福)이다. 다음엔 초서로 '「차월사정원운(次月沙亭原韻)」', 그 다음 '「제문(祭文)」'이 실려 있는데 주인공은 본문을 통해 '동양 신선여(東陽 辛善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알아보기 쉽지 않은 작은 글씨로 관직 등을 기록해놓았다.

II. 신경행(辛景行)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의 서지적 검토

신경행 「영성군일기」의 내용을 훑어보니 애석하게도 이몽학의 난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 내

* 중원대학교 외래교수/22sangju@hanmail.net

용은 글을 쓴 사람이 도인(道人)을 만나 ‘이인좌(李麟佐)의 난’의 발발을 예견하고 대비해야된다는 내용을 기술한 예언적 내용과 박문수의 활약상을 기술해놓았다.

신경행에 대해 참고로 간단히 살펴보자. 신경행(1574~1629)은 본관 영산(靈山)이고, 자는 도백(道伯)이다. 호는 조은(鈞隱)이며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지금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에 거주했다. 그는 이득윤(李得胤 1553~1630)의 아버지인 섬계(剡溪) 이잠(李潛 1528년~1575년)¹⁾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573년(선조 6)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4년 뒤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여러 벼슬을 지내고 1596년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이몽학(李夢鶴 ?~1596)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1604년 청난공신(淸亂功臣)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으며 충청병마절도사에 이르렀다. 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조은집(鈞隱集)』이 전한다.

「영성군일기」의 내용과 ‘이인좌의 난’ 발발연도, 신경행(辛景行 1574~1629)의 생몰연대 등을 감안해 볼 때 작자는 신경행이 아니다. 글을 쓴 사람의 성명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고 추측만 가능하다.

본문이 초서로 써져 있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소장자가 신현복(辛鉉福)과 ‘동양(東陽) 신선여(辛善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영성군’이라는 군호(君號)를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신경행이니까, 이를 토대로 ‘영성군일기’의 작자를 ‘신경행’이라 덧대서 써놓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어사로 유명한 박문수(朴文秀)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으로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그런데 ‘신경행’이라 한 것은, 신경행 후손 중에 누군가 자신의 선조 ‘신경행’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신경행 「영성군일기」’의 본문은 행초로 썼는데 이의 필사자와 초서로 쓴 ‘영성군일기’라는 제목과 해서로 쓴 ‘신경행’이라는 글씨체가 ‘동일인’이 쓴 것인지도 판별해야한다.

III. 「영성군일기(靈城君日記)」의 저자에 대한 검증

영성군(靈城君)이라는 군호(君號)를 받은 사람은 신경행을 포함해 몇 사람이 있는데, 박문수(朴文秀 1691~1756)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가 암행어사시절의 일화가 많이 전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행어사 시절 진주(晉州)에 갔을 때 기생과 관련된 일화와 동자(童子)와 관련된 일화가 기문총화(記聞叢話)²⁾와 선언편(選諺篇)³⁾에 실려 있다. 그러나 영성군일기에 기술돼있는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일화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영성군일기」의 내용과 박문수의 생몰연대 및 행적을 볼 때, 「영성군일기」의 내용을 쓴 사람은 박문수로 보아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저자가 경상도에 암행어사로 간 사실

- 1) 「영성군일기」 : 1장 3행 갑진년(1724년)에 경상도 암행어사를 제수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어

1) 李潛(1528년~1575년). 剡溪는 그의 호. 剡溪 위쪽에 서재를 열어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을 하고 제자를 永崇殿 參奉 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李珥와 증유함.

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실화전집』, 태학사, 1981, 12~7면, 17~19면.

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헌실화전집』, 태학사, 1981, 450~456면, 456~459.

명을 받들었다. (번역문)

2) 조선왕조실록 41 집 667 면 : 박문수가 경상도지방에 암행어사로 간 적이 있다.

영조4) 3년 정미(1727, 옹정 5) 9월 25일(무인). 이태좌가 호남의 흉년에 대해 진달하고 조태억이 박문수를 어사로 천거하니 허락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堂上官)을 불러 보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호남(湖南)의 흉년에 대해 진달하고, 이어 각 영문(營門)에서 요판(料販)하여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한 폐단을 논하고서 엄금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흉년도 호남(湖南)과 다름이 없으니 특별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흠어져 떠도는 백성들을 안집(安集)시키게 하고, 이어 내년 봄의 진구(賑救)를 감독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측량한 전지(田地)도 상세히 살피게 하소서.”하고, 이어 박문수를 어사(御史)로 천거하니, 임금이 박문수는 나이가 젊어서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어렵게 여겼다. 조태억과 김동필(金東弼)이 모두 박문수가 두루 통달하고 사무에 연달(鍊達)한 것을 아뢰니, 임금이 드디어 박문수를 어사(御史)로 삼았다.

*박문수가 경상도에 암행어사로 간 연도가 3년 차이가 나지만, 암행어사로 간 사실이 일치한다. 다음 이인좌의 난과 관련한 사실이 일치하고 있다.

2. 이인좌의 난이 발발한 연도

1) 「영성군일기」 : 3장 5행~7행- 그 후 4년 무신년(1728년) 도적의 난이 호남 영남에 일어나, 일국이 근심에 싸였으나, 수개월이 안 되어, 왕의 군사가 개선하여 평정하였다. 내가 승정원에 있는데 당직 중에 밤이 깊어지는데 집의 노예가 청주로부터 도망 와서, 청주성이 함락되고 병사(兵使: 이봉상[李鳳祥] 1676~1728)가 죽었다고 급히 보고했다. (번역문)

2) 실제 1728년 이인좌의 난이 발발했다.

3. 이인좌의 난 때 내통하였다고 모함한 사실

1) 「영성군일기」 : 3장 11~12행. 난을 평정한 후, 주변 사람이 이 재상과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역적모의하는 등 서로 내통한다고 날조했는데, 임금께서 이미 촛불을 밝히고 있는 당일에 이 재상이 들어와 응대했으니, 천박한 신하로 말미암은 것이다.

2) 조선왕조실록

(1) 조선왕조실록 42 집 101 면 :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 7) 1월 21일(병인). 승지 오광운(吳光運)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이도장(李道章)의 옥안을 안핵하게 명하다 .

승지(承旨) 오광운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이도장의 옥안(獄案)을 안핵(按覈)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박문수(朴文秀)가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본도(本道) 사람 이도장 등이 ‘박문수가 일찍이 소사령(素沙嶺)의 적진(賊陣)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 42 집 111 면 :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 7) 3월 6일(경술). 경상도 관찰사 박문수가 이도장의 일로 상소하여 변명하니, 위유하다.

4)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참고했다.

경상도 관찰사 박문수(朴文秀)가 이도장의 일로 상소하여 변명하니, 비답을 내려 위유(慰諭)하였다.

(3) 오광운(吳光運 1689년~1745년(영조 21) 한국문집총간 210~211. 해제. 행록. :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41 1월, 慶尙道에 파견되어 慶尙 監司 朴文秀가 戊申亂에 관계되었다고 고발한 이도장의 獄案을 조사하다.

다음으로 박문수에 대해 개괄한다. 박문수는 본관이 고령(高靈)이며, 자는 성보(成甫)이다. 호는 기은(耆隱)이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급제, 사관(史官)이 되었다. 1724년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올랐다가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삭직 당했다.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少論)이 득세하자 사서(司書)에 등용되어 영남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 관리들을 적발했다. 이듬해 이인좌의 난 때는 종사관(從事官)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 관찰사에 발탁되고,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어 영성군에 봉해졌다. 1730년 호서어사(湖西御史)로 기민(飢民) 구제에 힘썼으며, 1734년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1738년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앞서 안동서원(安東書院)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豐德府使)로 좌천되었다.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에 이어 함경도 진휼사(賑恤使)로 나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가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 후 병조판서를 지내고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황해도 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9년 호조판서가 되어 양역(良役)의 폐해를 논하다가 다시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좌천되었다. 그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 등을 거쳐 세손사부(世孫師傅)를 지내고, 1752년 왕세손(王世孫) 이 즉자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책임을 추궁당해 제주(濟州)에 안치, 이듬해 풀려나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았으며, 암행어사 때의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저서에 『탁지정례(度支定例)』 · 『국혼정례(國婚定例)』가 있고, 글씨에 『오명항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3가지 사실로 보아 「영성군일기」는 박문수가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문수가 암행어사 시절 많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도 그렇다. 제 3자가 박문수의 설화를 참고로 지어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남의 이름을 빌어 글을 쓰는 경우 즉 위작(僞作)의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글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 듯하다.

「영성군일기」는 초서로 썼기 때문에 내용의 연구와 서예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영성군일기」의 탈초는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연구원이신 이두희(李斗熙)선생님께서 도와주셨다. 필자가 역주했는데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일부 불충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 양해하고 질정해주시기 삼가 바란다.

IV. 맺음말

‘신경행 영성군일기’는 위와 같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자료의 내용을 통해, 국태민안을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와 국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관건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안보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자료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한다.

*원문 소장처와 서지사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등록 2004년 2월 26일, 古 3649-238

표제/책임표시사항: 靈城君日記 / 辛景行 編

출판상황: 筆寫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11張 : 折疊裝, 有界, 行字數不定 ; 31.3 x 18.2 cm

V. 【辛景行 靈城君日記】 역주

【원문】 辛景行 靈城君日記

余生長輦轂. 早占科祿 趨走躑漏之役. 然雅有山樵高蹈之想 每讀古書方外道家之類, 輒飄飄然神往矣. 當辛壬年間, 國事艱危, 訛言胥動, 國計民憂, 有不可勝言者, 而歲甲辰, 授慶尙道繡衣使, 奉命南下.

【번역문】 신경행 영성군일기

나는 장연곡(長輦轂)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과거공부에 집착하여 낮에 해가 지기까지의 시간과 밤에는 물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엽매이는 고역(高役)을 받아들여 쫓아갔다. 그러나 산야에 거처하고자하는 고답적인(高答的인) 생각을 평소애 가지고 있어, 매번 고서(古書)에서 세속 밖에 은둔하는(方外) 도가(道家)의 유포에 대해 천천(飄飄)히 정신이 그쪽으로 갔다. 신임연간(辛壬年間 1721~1722)⁸⁾에 국사가 어렵고 위험해 와전된 말이 서로 나돌아, 나라에서 백성의 근심을 없앨 계획을 세웠는데, 말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 갑진년(1724년)에 경상도 암행어사(9)를 제수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어명을 받들었다.

【원문】 蓋嶺南, 卽我國名勝之地, 山水晶英, 自古, 多異人釋流焉. 將欲窮探勝跡, 訪搜隱逸, 卽屏僣從, 罔冠竹杖, 歷覽 大小白日月青華茅⁶행: 達諸勝, 窮閭僻巷, 覽跡編焉. 不但察民隱採謠俗也, 或致誠於名山大川, 庶禱神佑, 初而未見有驗.

【번역문】 대개 영남은 우리나라의 명승지로 산수가 깨끗하고 맑아, 예부터 이인(異人)과 승려의 부류

5) 장연곡(長輦轂): 장거곡(長車轂)과 같음. 산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 수레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뜻에서 원용함. 즉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지명이 아니라, 산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산수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周禮』, 「考工記·車人」. 行澤者欲短轂, 行山者欲長轂.

6) 천루지역(躑漏之役): 낮에 해가 지기까지의 시간과 밤에는 물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엽매이는 고역

7) 산초고도(山樵高蹈): 산야에 거처하고자하는 고답적인.

8) 신임연간(辛壬年間): 신임사화(申壬士禍)를 가리킴. 신임사화(申壬士禍)는 신축(辛丑 1721년)임인(壬寅1722년) 양년에 일어났다하여 신임사화라고 한다.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게다가 무자다병(無子多病)하므로 하루 속히 왕세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론 4대신이었던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좌우정 이건명(李建命)·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등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이 관철되어 경종원년(1721년) 왕제(王弟) 연잉군(延仍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되자, 소론파의 우의정 조태구(趙泰耆)·사간(司諫) 유봉휘(柳鳳輝)등은 시기상조론을 들고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김창집 등의 건의에 따라 왕세제가 정무를 대리하게 됨에 이르러, 소론 승지 김일경으로 하여금 노론 4대신을 4홍으로 공격하는 한편, 목호룡으로 하여금 4대신을 역모로 무고(誣告)케하여, 4대신 일파는 극형을 당하여 정계에서 실각하고 말았다. 이 화옥(禍獄)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었고, 목호룡은 세제(世弟) 연잉군이 영조(英祖)로 왕위에 오르게 되자, 다시 소론일파가 쫓겨나고 참살 당하게 되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영조의 탕평책은 그 자신이 신임사화의 참담함을 몸소 겪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홍직, 『국사대사전』, 대영출판사, 1977.844면. 참조.

9) 수의사(繡衣使): 암행어사.

가 많았다. 장차 명승유적을 찾고, 은일(隱逸)¹⁰⁾을 찾아가고자하여 즉 시중드는 하인¹¹⁾을 물리치고 망건과 갓을 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태백산, 소백산, 일월산(日月山), 청화산(靑華山)¹²⁾, 우달산(芋達山)의 여러 명승을 관람하고, 후미진 마을과 으스스한 고을 등 두루 자취를 살펴보았다. 백성의 고통¹³⁾을 살펴보고 민요와 풍속을 채집하는 것뿐 만아니라 혹 명산대천에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신이 도움을 주기를 기도했는데, 처음에 효험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

【원문】 乙巳夏 歷豊基 探竹溪之勝, 將向安東, 鶴駕廣興寺 欲爲避暑修簿之計, 未及寺十里, 黑雲靄(상雨하對), 暴雨驟至, 因投入路傍店舍. 有老人先已在座, 衣冠淳古, 神采軒昂, 凝神靜坐, 肅然, 可敬, 一見可知非常人也. 及夕, 主人, 各進炊麥, 老人下一匙, 和水數呷而止. 余問曰何不吃飯, 老人曰有滯病, 食便難化. 小須就睡, 鼻息如雷.

【번역문】 을사년(1725년) 여름 풍기(豊基)¹⁴⁾를 지나 죽계(竹溪)¹⁵⁾의 승경을 탐방하고, 장차 안동(安東) 학가산(鶴駕山)에 있는 광흥사(廣興寺)¹⁶⁾로 가서, 장차 피서하고 발을 길게 드리울¹⁷⁾ 계획을 세웠는데, 절에 십리를 못 미쳐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별안간 쏟아져, 그로 인해서 길옆의 주점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먼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의관(衣冠)이 순수하고 옛스러우며, 신체(神采)가 고상하고 당당하며 정신을 모아 조용히 앉아 있는데, 숙연하기가 공경할 만하고 한 번에 비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이 각각 보리밥을 내기는데, 노인은 한 숟가락을 떠서, 물을 화합해서 몇 번 마시고는 멈추었다. 나는 “어째서 밥을 드시지 않으십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채한 병이 있어 먹으면 문득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한다. 조금 지나 잠을 자는데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다.

【원문】 余便假寐, 觀其動靜, 鷄初鳴, 卽起, 躬若便旋然出外. 余門牕隙竊視, 則 向東牆下, 吸息良久. 余於是而知其爲修鍊導氣人也. 前人 權方叔, 金00 常道 鶴雲山人, 隱居修道, 深探象數之學. 或者其人歟. 更入倚壁靜坐, 曉月如畫, 寂無人聲,

【번역문】 내가 문득 선잠을 자다가 그 동정을 살펴보니 첫닭이 울 때 일어나는데, 몸이 문득 돌아가듯(旋然) 밖으로 나갔다. 내가 문뜰모로 몰래 엿보니 동쪽 담장을 향해 호흡을 하는데 매우 오랫동안 했다. 나는 이 때 그가 수련도기인(修鍊導氣人)이라는 걸 알았다. 전에 살던 사람인 권방숙(權方叔) 김 00 상도(金 00 常道), 학운산인(鶴雲山人)이 은거하며 수도하고, 상수(象數)¹⁸⁾의 학문을 탐구했는데 혹 그

10) 은일(隱逸): 세상을 피하여 은둔해 사는 사람.

11) 겸종(廉從): 시중드는 하인.

12) 청화산(靑華山): 높이 984m.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문경시 농암면 경계에 있는 산.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에 천연기념물 290호인 소나무가 있다.

13) 민은(民隱): 백성의 고통.

14) 풍기(豊基): 경북 풍기군.

15) 죽계(竹溪):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죽계구곡.

16) 광흥사(廣興寺): 경북 안동시 서후면(西後面) 학가산(鶴駕山)에 있는 절. 신라의 승려 의상(義湘)이 669년(문무왕 9)에 창건했는데 그 후 여러 차례 중수(重修)·중창(重創)하여 대찰이 되었다. 1946년 화재가 발생하여 대웅전이 소실되고, 그 후 극락전·학서루(鶴棲樓) 등이 전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보물 제314호인취지금니묘법연화경(翠紙金泥妙法蓮華經)』과 보물 제315호 『백지묵서(白紙墨書)묘법연화경』 등 중요 문화재를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 응향각(凝香閣)·응진전(應眞殿)·칠성각과, 복원한 대방(大房) 및 정면 8칸, 측면 3칸의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다.

17) 수박(修薄): 발을 길게 드리움.

사람인가? 다시 들어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있는데 새벽달이 낮처럼 밝고 적막한데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원문】余卽欠伸起坐 斂容而言曰 先生住何處 老人曰 家貧失業 雲遊四方 未的住處 復問曰年數幾何 姓各云何 老人曰本新羅姓而早孤流離 不識生年 又無名字 余曰 先生 松形鶴骨 儀表堂堂 必是 物外高標 今僕猥被恩渥 周咨民隱而才不稱職 窃恐玷累君命 願先生辱教之

【번역문】 내가 하품을 하면서 일어나 앉아 얼굴을 가다듬고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하니, 노인이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여 일을 잃어 구름처럼 사방으로 떠다니어 갈 곳이 아직 적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시 묻기를 “연세는 얼마나 되셨으며 존함은 무어라 하십니까?”하니, 노인이 말하기를 “본래 신라의 종성(宗姓)¹⁹⁾이며 어려서 고아가 되어 떠돌아다녀 태어난 연도를 알지 못하고 이름도 없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선생은 소나무 같은 몸집에 학 같은 골격에 의표(儀表)가 당당하니 필시 세상물정 밖의 고고한 표상이시니, 지금 내가 외람되어 은혜를 입고 두루 백성의 고통을 두루 자문하나 재주가 직분에 부합하지 못하여 임금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가만히 두려워했는데 다만 원컨대 선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원문】老人曰俺 世之畸人也 無披無智 放浪江湖 有何知識而累及王人耶? 余曰方今 聖后初服 勵精圖治 而人心波動 似若不保朝夕者然 未知前頭 有何事變

【번역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기인(畸人)이라. 떨칠 것도 없고 지혜도 없어 강호(江湖)를 방랑하는데, 무슨 지식이 있어 왕인(王人)²⁰⁾의 수준에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방금 성후(聖后)의 초복(初服)이 되어 정신을 떨쳐 힘써 행하고 정치를 잘하고자 도모했으나(勵精圖治) 인심이 과도처럼 동요하여 조석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무슨 사변이 있을 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원문】老人曰公 國家蓋臣 跋涉嶺海 賢勞王事 除苛政伸冤枉 澤及生靈 吾雖隱淪 感服德惠 固已久矣 邂逅旅舍 不取詢薨 謹當一場 叙話矣 僕仰觀天象 俯察人心 前來四年 逆賊起於南方 然不過竄竊狗偷 朝起暮滅 不足深憂也 然吾恐差失機會 士流之禍 靡有孑遺 因口授一絕曰宮漏深深禁直間 風聲鶴唳總疑山 天門奏對休遲晚 禍福前頭係此間 余曰國祚靈長否 老人曰 漢陽爲金局 西方帶旺運 自此可得昇平矣

18) 상수(象數): 상수역(象數易)을 지칭함: 괘효상(卦爻象)을 천문(天文)·지리(地理)·율력(律曆)·오행(五行)·저귀(著龜)·잡점(雜占)·형법(刑法)등의 술수와 배합하여 한대(漢代)에 발전한 역(易)의 한 학파. 상(象)은 두 가지를 가리킨다. 하나는 괘상(卦象)이다. 천(天)·지(地)·풍(風)·뇌(雷)·수(水)·화(火)·산(山)·택(澤)등 팔괘(八卦)가 취한 상(象)과 64괘(卦)가 형상화한 사물 및 그 위치관계를 말한다. 또 하나는 효상(爻象)인데 음(陰)과 양(陽)의 두 효(爻)가 형상한 사물을 가리킨다. 수(數)도 두 가지를 가리킨다. 하나는 음(陰)과 양(陽)의 수(數)다. 음(陰)의 수(數)는 홀수요, 양(陽)의 수(數)는 짝수이다. 또 하나는 효(爻)의 수(數)인데 각 효(爻)는 9·8·7·6의 수를 가지며 그 위치는 처음(初)과 二·三·四·五와 꼭대기(上)의 자리를 갖게 된다.

19) 신라의 종성(宗姓): 박씨(朴氏).

20) 왕인(王人): 임금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 상대를 높여 칭하는 말.

【번역문】 노인이 말하기를, “공은 국가의 신신(薰臣)²¹으로 영해를 두루 돌아다니며 임금의 명령의 받아 하는 일(王事)을 어질고 수고롭게 처리하여 가혹한 정치를 제거하고 원한을 풀어주어 은택이 백성의 삶에 미치게 했는데, 내가 비록 은둔자이나 은덕과 혜택에 감복한지 진실로 이미 오래되었다. 여관에서 만나 신분을 초월하여 묻는 것²²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삼가 한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었소. 내가 하늘의 상을 우러러보고 인심을 내려다 보니 앞으로 4년에 남방에서 역적이 일어나나 쥐도독이나 개도독에 불과하여,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소멸될 것이니 깊이 근심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기회를 잃을까 두렵다. 선비들의 재앙이 홀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입으로 일러 절구 한 수를 주기를, ‘궁궐이 깊고 깊게 새니 당직자를 한가롭게 하지 말고, 바람소리 학이 우는 소리 모두 산을 의심하네. 대궐문에 아뢰어 대하면 늦추지 말고, 재앙과 복이 앞으로 이 사이와 관계가 있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나라의 상서로움이 영묘하고 오래가지 않겠습니까?”했다. 노인이 말하기를, “한양은 금국(金局)²³이 되어 서방(西方)이 왕운(旺運)을 띠어 스스로 이것이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원문】 余曰 百年以後之事變 可得詳言歟 老人曰一治一亂 天道之常也 自茲以後 權臣窃命 太阿倒柄 殺逆之變 縉紳之禍 無世無之而國 勢沈衰 以至百四十年下元甲以後 宗親執政 戚黨窃權 賊臣締結於外援 釀成禍階 敵兵羅織於州郡 禍及女君 天命去 人心解 五百年基業 至是盡矣 國家興亡 自古何限 而生民之厄 至此酷矣

【번역문】 내가 말하기를, “백년이후의 사변을 상세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노인이 말하기를, “한 번 태평성대가 유지되고 한 번 난세가 되는 것이니 지금 이후부터 권력이 있는 신하가 명령을 흠치고, 대아(太阿)²⁴가 자루를 거꾸로 잡으면, 살인하고 반역하는 변고와 선비들이 재앙을 당하니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은 없으니 나라의 세력이 침체되고 쇠퇴하여 140년 아래 원갑(元甲)이후 종친이 정치를 하고 친인척의 무리들이 권력을 흠치고 도적이 신하가 결속하여 밖의 원조를 받아 재앙의 계단을 기르게 되고, 적병이 주군(州郡)에 짜여 있어, 재앙이 그대의 임금에게 미치니, 천명이 떠나가고, 인심이 해이해져 500년 뒤엔 왕업이 다하게 되었다. 국가의 흥망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어 백성의 재앙이 이처럼 참혹하리오?

【원문】 余既聞此言 掩抑流涕 老人起敬 曰 今公勿悲之 當此之時 不但我國爲然 普天之下 同歸一轍 興亡無常 而水能用火 陸能行舟 鐵蛛纏地 羽人飛空 北狄一蹶 腥濺天下 南佛再起 碁翻萬國 大同之患 公何獨悲乎?

【번역문】 내가 이미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억제하니, 노인이 일어나 경건히 말하기를, “지금 공은 슬퍼하지 마시오. 이런 일을 당하는 시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루 천하가 같은 전철을 밟아 돌아가는 것이며, 흥망은 무상하여, 물이 불을 사용하고 육지에 배를 다니게 하고, 쇠로 만

21) 신신(薰臣): 충군 우국하는 마음이 두터운 신하.
 22) 순요(詢薏): 『詩經』. 生民有言, 詢于鄒薏. 신분을 초월하여 묻는다는 뜻.
 23) 금국(金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조선 고종 37년 경자(1900, 광무 4) 6월 15일(을유, 양력 7월 11일).수구(水口) : 혈(穴)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빠져나가게 하는 고장지(庫藏地)를 말한다. 고장지는 진(辰), 술(戌), 축(丑), 미(未)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혈의 사대국(四大局)이 결정된다. 곧 고장지가 진일 경우는 수국(水局), 술일 경우는 화국(火局), 축일 경우는 , 미일 경우는 목국(木局)이다.
 24) 대아(太阿): 용천검(龍泉劍)과 공시검(工市劍)과 함께 옛 중국 보검의 하나.

든 거미가 땅을 엮고 깃털이 달린 사람(神仙)이 허공을 날고, 북쪽 오랑캐가 한 번에 차버리고, 비린내가 천하에 왕동하고, 남방의 부처가 다시 일어나고, 바둑이 만국을 뒤집어엎으니, 대동(大同)한 우환을 그대가 유독 슬퍼하시오?”라고 했다.

【원문】余曰此時被何方之禍：老人曰百年以前，運起於西。故有建州之禍，百年以後，運起於東。故被東夷之禍矣。余曰先生有先知之鑑，抱世之才，能無避凶趨吉之道否。

【번역문】 내가 말하기를, “이런 때에 재앙을 피할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라고 했다. 노인이 말하기를, “100년 이전에 운이 서쪽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건주(建州)²⁵⁾의 재앙이 있는 것이요, 100년 이후에 운이 동쪽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동쪽 오랑캐의 재앙²⁶⁾을 입은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선생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감식능력과 세상을 포용할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일을 추구할 방도가 없겠습니까?”라고 했다.

【원문】老人曰此時之禍，非朝起暮滅之禍，日月之治，并字之運，版圖全歸，地之勝，川澤之利，無非敵有，而民生之活，反懸於其籠絡，一人一止之運，饑饉荐至，民窮財竭，無以聊生，而三南一畔，京畿兩西咸鏡，編被兵火，江原一境，中賊之亂甚於兵火。於是有所知覺者生，無知覺者死，積善者生，積惡者死，勤儉者生，安逸者死，得吉地者生，不得者死。

【번역문】 노인이 말하기를, “이 시기의 재앙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소멸될 재앙이 아니니, 해와 달의 다스림(日月之治)과 아우르고 기르는 운(并字之運)이 판도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지리적인 우세함과 하천의 유리함을, 도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민생이 살길이 도리어 그 농락함에 달려 있어(?), 한 사람이 한 번 멈추는 운이라(?), 기근이 (?) 거듭 이르러 백성이 궁핍하고 재산이 다 소모되어 애오라지 살 수가 없어, 삼남 일반 경기 양서 함경도는 병화를 두루 입을 것이며, 강원도 일대는 도적의 난에 적중되어(?)병화(兵火)보다 심할 것이다. 이에 지각이 있는 사람은 살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죽고, 선을 쌓은 사람은 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죽고, 근검한 사람은 살고 안일한 사람은 죽고, 길지를 얻은 사람은 살고 얻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다.

【원문】老人曰：又回亂旋治，天理之循環也。年來累上白頭山絕頂，觀天象按山脈，是時吉運，先回於鴨水一帶，外數千里之地，土地膏沃林木茂盛，真是天府之國，用武之地，聖人斯出，群雄蜂起，遠結西尼，近親中國，先得人和於夫餘，繼得天時於平壤，復回地利於天台，政治善富，抗衡天下，伯業成矣。於焉，曉窓已曙，人喧[門市]外，老人即起去。余追至洞門。

【번역문】 노인은 말하기를, “또 난리가 돌아 치세(治世)로 돌아가는 것이 천리가 순환하는 이치이다.

25) 건주(建州)의 재앙: 건주좌위(建州左衛)의 수장(首長) 누르하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616년 스스로 한(汗)의 위(位)에 올라 국호를 후금(後金)이라 하고, 흥경(興京)에 도읍하였다. 명과 조선의 연합을 막기 위해 정묘년(1627년)과 병자년(1636년)에 걸쳐 조선을 침입하였다. 1636년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고쳤다. 1644년 농민군 지도자 이자성(李自成)의 지휘로 북경(北京)에 진격하여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26) 동쪽 오랑캐의 재앙: 1592년 왜군이 침입한 임진왜란.

연래에 여러 번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문을 보고 산맥을 살피니 이 시기의 길운이 압록수 일대에 먼저 돌고 있는데, 그 밖 수 천리 땅은 토지가 비옥하고 삼림이 무성해서 진정 천부(天府)²⁷⁾의 나라이며, 무력을 쓸 수 있는 땅이라서, 성인(聖人)이 여기서 출현하고, 여러 영웅이 봉기하고 서니(西尼)가 멀리 결연하고 중국과 가까이 지내, 먼저 부여(夫餘)의 사람과의 화합을 획득하고, 평양(平壤)의 하늘이 주는 유리한 시기를 이어 획득했으며, 천태산(天台山)에서 지리적 유리함을 다시 돌려 정치가 잘 돼가고, 천하를 서로 대항하여 버티어, 백업(伯業)²⁸⁾이 이루어졌다. 어언 새벽 창이 이미 밝아져, 시장밖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노인이 일어나서 떠났다. 내가 동네 입구에 까지 이르렀다.

【원문】 老人曰 何必 勤相送也. 緩急慎勿忘俄誦絕句, 積善善報, 其理不忒, 後承必有克勤克艱, 于祖有光者矣. 仍自懷中, 出一小帖, 曰此是百年後濟世之訣, 慎藏遺後. 卽敍別, 風袂飄然, 不可尋跡矣.

【번역문】 노인이 말하기를, “하필 서로 간에 빨리 전송하려 하오? 완급하게 삼가 내가 암송해준 절구를 잊지 마시오. 선을 쌓으면 잘 보답을 받으니 그 이치가 사특하지 않다. 후에 계승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지런히 하고 어려움을 이겨 조상에게 빛을 남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인하여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하기를, “이것이 100년 후 세상을 구제할 비결이니 삼가 감추었다가 후세에 남기라.”하였다. 즉 이별을 하니 바람이 소매를 날리며 휙 사라져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원문】 後四年戊申, 賊亂起湖嶺, 一國騷然, 而不數月, 王師凱平. 是年春, 余在政院, 直中夜深, 家隸自清州逃來, 急告清州城陷, 兵使之死. 余驚惶罔措, 而旋念危疑之際, 以下隸所傳, 入對未安, 欲觀變動, 忽思老人“天門奏對休遲晚”之句, 當夜往雲谷李相第, 以隸告告之曰, 事急矣. 卽夜入啓, 李相難之曰未見該道狀啓, 而輕對何如? 余曰的知有變 不可不啓 李相卽時詣闕稟達. 遂命扈衛宮城. 翌午 本道狀啓 果來矣.

【번역문】 그 후 4년 무신년(1728년) 도적의 난²⁹⁾이 호남 영남에 일어나, 일국이 근심에 싸였으나, 수 개월이 안 되어, 왕의 군사가 개선하여 평정하였다. 내가 승정원에 있는데 당직 중에 밤이 깊어지는데 집의 노예가 청주로부터 도망 와서, 청주성이 함락되고 병사(兵使)³⁰⁾가 죽었다고 급히 보고했다. 내가 문득 노인이 말한, “대궐문에 아뢰어 대하면 늦추지 말고”라는 시구가 생각나서, 그날 밤 운곡(雲谷) 이 재상³¹⁾집으로 찾아가, 노예가 보고한 내용을 보고하야 말하기를, “사태가 급합니다. 곧 밤에 들어가 계를

27) 천부(天府): 천부지도(天府之土). 천연적으로 요새를 이룬 땅. 땅이 매우 비옥해 다양한 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땅.

28) 백업(伯業): 으뜸 근본적인 업적.

29) 무신년(戊申年 1728년) 도적의 난: 이인좌 등이 일으킨 반란. 보통 인(麟)자를 씀. 영의정 준경(浚慶)의 후손이며, 관찰사 운징(雲徵)의 손자로 영조의 즉위로 소론(少論)이 실각하자 불평 세력을 규합하여 정희량(鄭希亮)과 함께 밀풍군(密豐君) 탄(坦)을 추대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 했다. 1728년 3월 상여(喪興)에 무기를 싣고 청주(淸州)에 잠입, 밤에 충청도(忠淸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이봉상(李鳳祥)을 죽이고 대원수(大元帥)라 자칭, 각처에 격문(檄文)을 돌려 병마(兵馬)를 소집하고 진천(鎭川)을 거쳐 안성(安城), 죽산(竹山)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용인(龍仁)에 은거 중이던 최규서(崔奎瑞)의 고변(告變)으로 출동한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관군에 의해 죽산 싸움에 대패하고 절에 숨었다가 부락민에 의해 잡혀 서울로 압송된 후 참형되었다.

30) 병사(兵使): 이인좌 난 때 청주 병상 이봉상(李鳳祥 1676~1728). 자(字)는 의숙(儀叔). 이순신(李舜臣)의 5대손. 1702년 무과에 급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慶尙右道 水軍節度使)를 거쳐 형조참판(刑曹參判)·훈련대장(訓練大將)을 역임하였다. 1728년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좌천되어 있을 때 이인좌의 난에 충주에서 난군에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되었고 아산(牙山)의 현충사(顯忠祠)와 청주(淸州)의 표충사(表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諡號)는 충민(忠愍).

31) 이광좌(李光佐, 1674~1740): 본관 경주(慶州). 호 운곡(雲谷), 시호 문충공(文忠公). 자 상보(尙輔). 1694년(숙종 20)

올려야합니다.”라고 하니 이 재상은 그것을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해당되는 도(道)에서 보낸 장계를 보지 못했는데 경솔하게 대처했다가 어찌하러하오?” 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적확히 변고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재상이 즉시 대궐에 나아가 전달했다. 드디어 금위병(禁衛兵)³²⁾으로 궁성을 호위하라고 명령했다. 이튿날 정오 본도(本道)에서 장계가 과연 올라왔다.

【원문】 戡亂之後，一邊人嫉惡李相及余以交通賊謀等，構捏，而聖上[己]獨當日李相入對，由於賤臣。故終始庇護，不替恩遇，非但賤臣，護全性命，一隊士流之能免魚肉，蓋由於伊時啓達之得宜也。於是，益信老人先知之鑑也。茲述問答 以備後日之考而其詳 在於日月山下。

【번역문】 난을 평정한 후, 한 주변 사람이 이 재상과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역적모의하는 등 서로 내통한다고 날조했는데, 임금께서 이미 촛불을 밝히고 있는 당일에 이 재상이 들어와 응대했으니, 천박한 신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시종 비호해주고 은혜를 바꾸지 않으니, 비단 천박한 신하 뿐 만 아니라 성명(性命)을 보호하고 온전히 하여, 한 부류의 선비들이 물고기 밥을 면하게 됐으니, 대개 저번 때 장계를 시기적절하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노인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감식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욱 믿었다. 이에 문답을 기술하여 후일에 상고할 자료로 대비하여, 그 자세한 것은 일월산(日月山)³³⁾ 아래에 둔다.

【원문】 日本東出西山沒，午未昇光申西移。羊觸秋藩人易動，猿啼春樹鬼難知，一天風雨鷄鳴夜，萬國腥塵犬吠時。欲識箇中生活處，叢林宿鳥下踈籬。李薑山梳頭猶有餘生蟲 莫作群中最大名 弊衣多垢勝金甲 小廬無墻便鐵城。葛處士 與薑山同時人。

【번역문】 해는 본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낮에 빛이 오르지 않으니 신유년(1741년)에 옮겨가네. 양(羊)이 가을 울타리에 부딪히니 사람이 움직이기 쉽고, 원숭이가 봄의 나무에서 우니 귀신도 알기 어렵네. 닭이 밤에 우니 한 하늘 풍우 일고, 개가 짖을 때 만국에 비린내 나는 세상이 되네. 그 가운데 살 만한 곳 알려고 하니, 숲속에서 자는 새가 성긴 울타리에 내려오네. 이강산(李薑山)³⁴⁾이 머리에 빗질하니 오히려 살아남은 이가 있네. 군중에 최대의 이름 짓지 말라, 헤진 옷 목은 때 금갑(金甲)보다 나으니, 작은 집 담장도 없으나 문득 쇠로 만든 성(城)일세. 갈처사(葛處士)는 강산과 동시대 사람이다.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이조참의 등을 거쳐 1715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8년 예조참판에 다시 등용되어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이 되었다. 사직(司直)에 재직 중 왕세제(王世弟) 연잉군(延昞君:英祖)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하여 경종에게 이를 취소하게 한 뒤에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켜 노론(老論)을 제거하고, 소론이 정권을 잡자 예조판서·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1725년(영조 1) 영의정에 승진되었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영의정에 복귀하여, 실록청 총재관(摠裁官)으로 임명되어 『경종실록(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보유편(補遺篇)』의 편찬을 맡았다. 영조에게 탕평을 실시할 것을 상소하여 당쟁의 폐해를 방지하기도 하였다. 저서에 『운곡실기(雲谷實記)』가 있다.

32) 금위군(禁衛軍): 금위영(禁衛營)에 소속의 군인. 조선 후기에, 서울을 지키던 군영으로 삼군문(三軍門) 또는 오군영(五軍營)에 속했다. 숙종 8년(1682)에 정초군과 훈련별대(訓練別隊)를 통합했으며, 고종 18년(1881)에 장어영으로 통합했다가 고종 22년에 폐지했다.

33) 일월산(日月山):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과 청기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높이 1,219m. 태백산맥에 속해 있으며, 이 산이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半邊川)의 발원지이다. 남서 경사면에 천화사(天華寺), 동쪽 경사면에 용화사지(龍化寺址)가 있다.

34) 이강산(李薑山):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호. 호가 강산(薑山)인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서구라고 장담할 수 없음. 자는 낙서(洛瑞). 호는 척재(惕齋). 관직은 사관(史官)을 거쳐 호조 판서, 대제학, 우의정에 이르렀다. 명문장가로 시명(詩名)이 높아 한시(漢詩) 사가(四家)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저서에 『강산집』, 『척재집』이 있다.

[논문접수:2010.01.14, 심사시작:2010.01.15, 심사완료:2010.02.12]

주제어: 왕, 영성군일기, 생활, 이인좌, 박문수

<ABSTRACT>

A Study of 「Lord Yeongseong's Journal」

Lee, Sang-ju

It seems that 「Lord Yeongseong's Journal(靈城君日記)」 is written by Park, Munsu(朴文秀) with to infer the general situation. 「Lord Yeongseong's Journal(靈城君日記)」 can be used in reference materials to study the related a disturbance of Lee In Jwa(李麟佐). Through the contents, for nation is being well and the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國泰民安), it is important that there is a preparation so there is no misfortune(有備無患). We can obtain the lesson when the national revolt takes place, the government's fast confrontation management is significant.

key word : Lord Yeongseong's Journal, livelihood, Lee In Jwa, Park, Munsu